

“확진자만 안 나오길”...광주 변화가 방역 ‘위태’

마스크 제대로 착용 않고 5인 이상 모여 배회

단체 흡연·‘노마스크’ 대화...‘쫓개 앓기’ 유도도

“우리 가게에서 확진자만 안 나오길 바랍니다.”

지난 24일 오후 8시 광주 서구 상무지구 변화가 일대. 술집·룸소주방·헌팅포차·노래방·클럽 등 각종 유흥시설 간판 조명이 밝게 켜져 있었다.

상무광장 주변에는 만나기로 한 친구·지인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대부분 마스크는 착용하고 있었지만, 감염 확산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방역 위반 행위가 눈에 띄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수분 간 대화하거나 5인 이상 집합 금지령 어기고 8-9명이 무리를 지어 배회하기도 했다.

서로 장난을 치다 어깨동무를 하기도 했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지만 대화도 잦았다.

광장 곳곳엔 마스크를 팔목에 걸거나 턱에 걸친 채 흡연을 하는 시민도 많았다.

일부는 아예 마스크를 잠시 두고 인근 술집에서 나온 듯 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많지는 않았지만, 호객 행위도 여전했다. 특히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는 만큼, 생활 방역을 위협하는 행위로 비춰졌다.

주변 술집·식당은 대체로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유명세를 탄 대형 술집엔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인접한 헌팅포차엔 과거와 같은 합석 행위는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밤이 깊어지면서 손님이 늘었다.

한모(30)씨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최근 그나마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 같다. 분리 공간이 보장된 룸소주방·노래방 등에선 손님이 북적인다”고

전했다. 방역 수칙 준수를 높이고는 손님과 종업원간 접촉도 낮아졌다.

술집에서 일하는 김모(27)씨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을 놓고 가벼운 말다툼은 흔하다. 술 취한 손님을 상대하다보니 엄격하게 방역 지침을 적용하기도 어려워 난감하다”며 “확진자만 나오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부 술집엔 방역 수칙 안내 문구와 함께 투명 칸막이를 좌석마다 설치하는 등 자체 방역 노력이 엿보였다. 구조 자체를 나란히 앉는 형태로 바꾼 가게도 있었다.

같은 날 광주 동구 광산동 옛 시청사거리 주변 변화가.

주말이 아닌 터라 가게마다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는 모습이었다.

가림막이 갖춰지지 않았지만 3m 안팎 되는 길다란 식탁엔 여러 일행이 둘러앉았다.

가림막 설치·좌석 간 거리 유지가

지켜지더라도, 화장실·계산대를 오가는 손님들은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

5인 이상 단체 손님이 와도, 종업원이 이른바 ‘쫓개 앓기’를 안내하며 방역 지침을 어긴 술집도 있었다.

취기가 오른 젊은 남성 3-4명은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무야호(유희어)”를 외치며 배회했다.

정모(20)씨는 “술자리에선 취기와 흥이 오르면서 어느새 방역 수칙을 소홀히 하게 된다”고 말했다.

식당 옆 골목엔 흡연을 마친 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서로 모여 대화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다.

한모(25·여)씨는 “흡연 뒤에 구취 예방 차원에서 1-2분 동안 마스크를 벗어둔다. 마스크를 벗은 채 무심코 일행과 대화를 이어갈 때가 많다”고 했다.

지역 대표 유흥가인 광산구 첨단지구도 상황은 비슷했다.

각종 유흥시설은 코로나19 위기를 실감하기 어려운 정도로 성업 중이었



사회적거리 두기 1.5단계가 시행 중인 24일 오후 광주 동구 광산동 변화가 한 술집 앞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대화하고 있다.

다. 한 술집엔 빈 좌석을 찾기 힘들 만큼 손님이 붐볐다. 우연히 마주친 지인과 대화를 하겠다며 좌석간 이동도 잦았다.

대학생 이모(23)씨는 “주변 사람들

은 대체로 ‘(코로나19에)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오랜 거리 두기로 방역 지침 자체에 의문을 품거나 피로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윤희기자



‘LH 해체하라!’ 진보당 전북도당 관계자들이 25일 전북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앞에서 ‘LH 해체 촉구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식판 똑바로 안 치워?’ 두세 살 원아 상습학대 교사 집행유예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세 살 배기 원아들을 상습 학대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어린이집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용민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교사 A(51·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예방 강의 8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장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B(55·여)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12월 사이 자신이 일했던 어린이집에서

두세 살 배기 원아 5명에게 57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기간 폐쇄회로(CC)TV 영상과 보육일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민정기자

순천시의회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수개월째 ‘낮잠’ 눈총

행정감사 지적 이어 상임위 통과했는데도 나 몰라라

순천시의회가 전남 시 단위 지자체 중 순천시만 적용하고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 폐지’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했는데도 9개월 동안 본회의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어 시정 발목 잡기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순천시가 서울 등 대도시들이 시행하고 있는 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을 폐지한다는 방침에 순천시의회가 9개월 동안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어 시정 발목 잡기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구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충분한 검토 끝에 통과한 사안인데도 수개월째 방치하고 있어 의원들간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눈총도 받고 있다.

25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역특성이 반영된 경관정출을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신축시 층수제한을 없애고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220%로 강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은 2011년 7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을 폐지했다. 서울시도 2012년 5월부터 적용하고 있고, 광주시 등 전국 대도시에서도 이 법률을 따르고 있다.

전남에서는 목포·여수·광양·나주시 등이 250% 용적률을 유지한 채 층수 제한 규정을 이미 삭제했다.

이들 지자체들은 열린 스카이라인을 유도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 창출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층수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현재 전남지역에서는 시 지자체 단위로는 유일하게 전남 최대 인구 도시인 순천시만 층수 제한 규정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눈총도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관내 아파트 신축이 늘어나면서 층수제한이 오히려 일률적 높이로 건립을 조장해 도시경관을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

다.

바람길과 풍광을 막는 등 미관을 제한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돼 왔다. 앞서 순천시의회는 2019년 행정감사에서 층수를 제한하는 시 행정을 꼬집고 타 도시처럼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을 폐지’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7월 도시건설위원회도 “지상의 여유공간을 뚫으로써 통풍이나 시야 확보에 도움을 준다”고 판단, 층고 제한을 해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신축시 층수제한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대신 건설사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기 위해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220%로 강화하기로 했다. 다른 지자체들 보다 훨씬 사업주에게 불리한 내용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층수 제한이 없어도 용적률에 맞추기 때문에 무작정 높이 짓지는 못해 경관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순천=김승호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